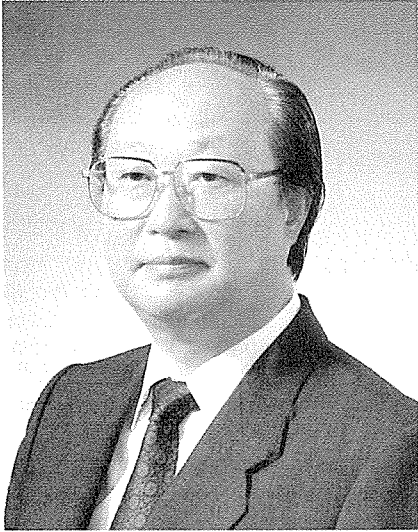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 회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년 퇴임식서



▲ 임한중 회장

◀30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 회장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정년 퇴임하면서, 그 동안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공을 인정받아 정부로

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임한중 회장은, '57년 서울의대 졸업, '60년 미국 미네소타대학원 유학, '63년 서울의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의대 부교수(~73년)를 거쳐 '72년에 고려의대 부교수로 재직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임회장은 그동안 주월 한국의료단 부단장, 대한기생충학회 회장, 한국농촌의학회장, 국제농촌의학회 이사, 고려의대 열대풍토병연구소장, WHO 기생충성질환 전문자문위원, 세계기생충학자연맹실행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임회장은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성공적 기생충관리를 위

해 학술연구와 실질적 기생충관리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특히 디스토마 치료제제인 프라지관텔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기생충 퇴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임회장은 또 후진 양성과 함께 왕성한 국제 학술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66년 이래 많은 국제 회의 및 학술대회 등에 참석하는 한편 국제 기생충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지난 '92년부터는 중국과의 본격적 학술교류를 시작해 현재 중국 기생충감염 실태조사와 관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임회장은 지난 2월 28일에 있었던 고려의대 정년퇴임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건협 전국지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본격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시도지부가 올해부터 신생아 대상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정신지체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하는 저소득층 신생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무료검사

를 실시키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병의원·모자보건센터 등에서 출생할 신생아 61만여명을 대상으로 총 예산 530여억원을 들여 실시되는 이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신생아들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박약아들을 사전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2세대 복지사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검사는 보건소·병의원 등을 비롯한 검사기관에서, 출생 1주일 이내에 신생아로부터 채혈을 하여 건협을 비롯한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치료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보건소에 등록된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한 특수분유(페닐케톤뇨증) 및 치료비(갑상선 기능저하증)도 지급된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TV보도 활발



▲ 텔런트 남윤정씨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 강서검진센터에서 여성건강검사를 받고 있다.(사진 좌측은 검진과정을 설명하는 성정웅 사무총장)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2월

한달동안 국민건강정보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TV 보도를 활발히 전개했다.

2월 12일 KBS-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뼈의 노화를 막는다'는 주제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방송했는데, 인기 연예인 남윤정씨가 협회를 방문하여 여성 전문 클리닉 검

사를 받는 과정과 협회 검진 내용

이 방송되었다.

2월 13일 EBS(교육방송)에서는 의학 100년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임한중 회장이 출연 우리나라 기생충관리의 역사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역할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3월 2일에는 KBS-2TV의 「TV쇼 진품명품」의 출장 감정 코너에 우리 협회 직원들이 소장품을 가지고 출연해 협회의 역할을 소개하기도 했다.

진수일 박사, 원자력병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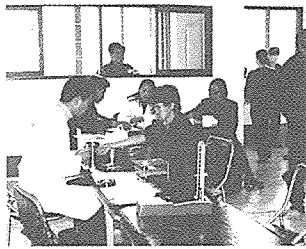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관리 전문위원인 진수일 박사가 지난 2월 14일자로, 원자력 병원 부원장에서 원장으로 승진·임명되었다.

부산지부 하성미 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 위촉

부산지부 하성미 사무국장이 지난 2월,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원장·부위원장과 보건의료 관련 인사 및 일반주민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실태 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전·충남지부, 성신원 수용자 무료 검사



대전·충남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31일,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인 성신원 수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사를 실시했다.

소변검사, X-선, B형간염, 빈혈, 심전도 검사 등이 실시된 이번 무료검사에서 성신원 수용자 15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충북지부, 선천성 대사이상사업 간담회

충북지부는 지난 1월 24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지부 홍보관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사이상검사업 관련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지부, 국민대생 신체검사



서울지부는 지난 2월 강북검진센터(용두동 소재)에서 국민대 신입생 2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